

동종업계에서 최고위치 점유 위한 발돋움 과감한 인력투자·업무의 전산화로 경쟁력 강화

도약의 전기 마련

연포장 부문에서 필름류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인쇄잉크이다.

인쇄잉크의 제조업체는 국내에 중소 50여개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연포장에 사용되는 잉크는 그라비아용 인쇄잉크와 플렉소용 인쇄잉크로 대별된다.

국내의 잉크제조업체 대부분은 상위 10개사를 제외하고는 가내공업이라 할만큼 소규모의 시설과 생산으로 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주식회사 명성산업(대표이사 신정열)은 지속적인 투자로 그라비아용 인쇄잉크와 플렉소용 인쇄잉크, 관련 접착제 및 코팅제의 신제품을 꾸준히 개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주)명성산업은 지난 82년 7월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에서 업무를 개시하여 인쇄용 잉크의 개발과 생산에

주력하여 성장기반을 구축하게 되었고, 84년 2월에 춘의동으로 공장 및 사무실을 확장, 신축하기에 이르렀다.

87년 2월에는 신정열 대표이사 체제로 회사가 전환되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 성장가도를 달려 또다시 91년 10월에 지금의 시화공단 공장으로 확장 이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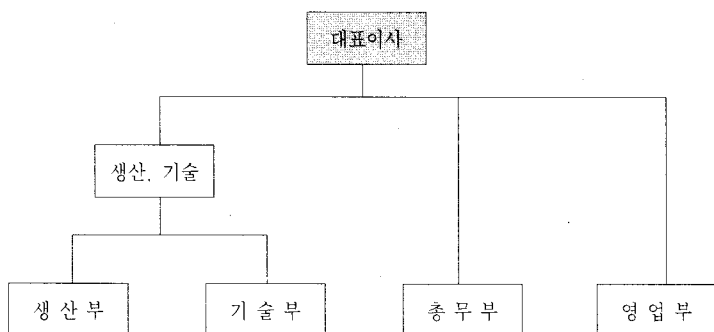
▲명성산업의 신정열 대표는 경영 슬로건을 '제일주의'로 내걸고 과감한 인력 투자와 업무전산화 추진 등으로 업계에서 빠른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시화공장은 대지 1,200평에 건평 580평으로 시설확충 및 간이자동화,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을 갖춰 놓고 제2의 도약을 위해 땀흘리고 있다.

시화공장으로 이전한 (주)명성산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8000만원을 투자해 (주)농심의 데이터시스템과 공동으로 그라비아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전업무의 전산화를 구축해 놓고 수주에서 출고까지 전업무(영업, 자재, 생산, 인사, 회계, 관리)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업무관리능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명성산업의 시화공장에는 월평균 250톤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전공정의 자동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실제 프로그램 제작 등이 끝나지 않아 수

[표1] 기구조직표



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하반기에는 완전 자동화를 실현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공장자동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과감한 투자를 통해 생산능률을 높이고 업무효율을 올린다는데 중점을 두고 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를 서두르고 있다.

과감한 인력투자로 승부

명성산업의 시화공장에는 기숙사와 휴게실, 샤워장, 탈의장 등 각종 복리후생시설을 갖춰 놓고 종업원들이 작업후 쉴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인력에 대한 투자도 병행, 기술부와 현장인력을 정예화시키고 있다.

(주)명성산업은 적은 인원임에도 각자 맡은 업무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능력 및 업무수행과 동종업계에서 품질, 매출, 기타 분야에서 최고를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사훈을 '제일주의'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세부적인 경영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의식 및 행동의 전환을 이루어 제일주의에 다가서

자는 계획으로 일본 등 선진외국과의 기술교류를 통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기관과 다각적인 교섭을 통해 기술통로를 개척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가고 있다.

또한 국제화에 발맞추기 위해 직원들의 어학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92년 11월부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개별 및 집체교육을 통해 전직

[표2]주요 시설

설비	용량	댓수
다이노 밀	30L×2EA	1대
다이노 밀	30L×1EA	4대
펠 밀	30L	5대
3ROLL-MILL	14" 16"	2대
고속 DISPERSER	30HP	1대
"	30HP	2대
"	10HP	1대
수지용해조	2TON	16SET
수지반용조	2TON	1SET

[표3] 1993년 품목별 판매량 및 매출액

(수량: Kg 금액: 천원)

구분	품목	수량	금액	비율(%)
1	그라비아 인쇄잉크	2,708,000	4,250,000	94.44
2	플렉소 잉크	55,000	160,000	3.56
3	접착제 및 코팅제	31,000	90,000	2.00
	계	2,794,000	4,500,000	100

원이 일본어 연수를 받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의식 전환교육 및 부분별 전문교육을 병행하여 개인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지헌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동남아 및 중국에 대한 수출이 시작된 원년으로 이를 계기로 올해부터는 수출시장 개척에도 주력하고 각종 특수 잉크의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길러나갈 계획이다.

(주)명성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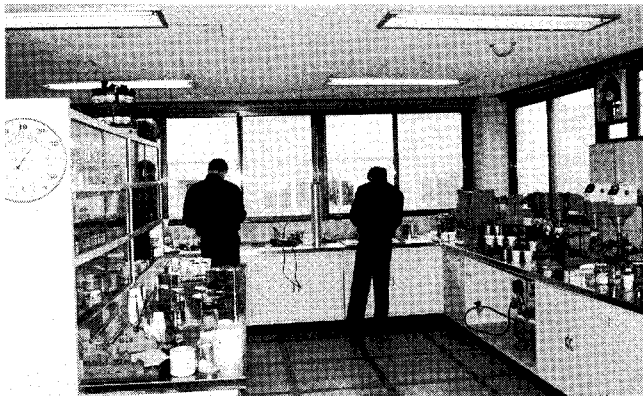
품목은 그라비아용 인쇄잉크, 플렉소용 인쇄잉크, 각종 접착제 및 코팅제로 92년 37억원, 93년 45억원, 그리고 올해에는 57억원의 매출목표를 잡아 놓고 있다.

이 회사에서 그동안 개발한 품목 가운데 91년 연포장 인쇄물의 냄새문제를 최소화한 저취형 잉크는, 품질평가면에서 최고등급을 받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92년에는 울촌화학에서 가동중인 설비에 맞도록 고속자동화 인쇄(분당 250M)를 위한 고속용 잉크를 개발했고 아울러 플렉소용 잉크, 기타 연포장 부자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인쇄잉크업계의 기술선두주자로 나서기 시작했다.

자동고속잉크는 분당 200M이상 인쇄할 경우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한 것으로 품질수준이 국내에서는 최우수로 평가받고 있다.

이밖에 최근에는 식품포장용 인쇄



▲명성이 자랑하는 연구실

잉크의 냄새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조청잉크'라는 저취형 잉크를 개발했고 무취에 가까운 잉크를 개발, 일본에 샘플을 보내 좋은 평가와 함께 가격경쟁력을 갖춰 수출을 통한 수요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올해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4가지 특수 잉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위해 자료수집, 기술정보교환 등을 꾀하고 자체 기술진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하반기부터 상업화한다는 계획이다.



▲완제품 잉크 보관 탱크

‘잉크도 표준색상 지정돼야’

명성산업의 신정열 대표이사는 현재 잉크업계의 문제점을 “오프셋, 페인트, 염색 등에는 표준색상이 지정돼 있으나 그라비아잉크에는 표준색상이 없어 이의 제정과 통용이 시급하다”며 “표준색상 지정은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 등 관련기관과 업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사용자나 정부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잉크업체들 만이라도 협의체를 구

성, 위험을 감수한 투자로 신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산업분야보다 한정된 시장에 많은 업체가 난립돼 과당경쟁이 심한 잉크업체는 영세하고 기술의 낙후 및 개발의 한계, 작업조건의 열악, 인력투자 및 기술개발의 한계로 적정가격 이하로 거래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업체 대부분은 납품가격에 품질수준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기술개발이 어려워 집니다. 연포장 생산업

체도 저렴하게만 구매하겠다는 방식이 팽배해 있어 잉크제조업체들이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라며 신정열 대표이사는 잉크업계의 환경과 문제점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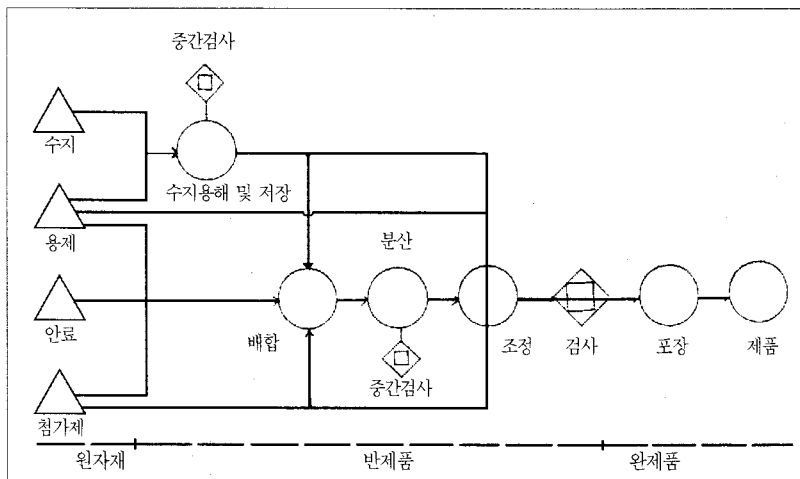
잉크업체의 발전방향에 대한 그의 지론은 상호 기술교류 및 정보교환등이 이루어지는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연포장 업체에서의 의식전환으로 제품개발에 대한 상호 협조를 통해 문제발생시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협력업체가 되는 것이다.

명성산업은 몇년전부터 잉크업체 및 연포장업체의 상호 협력체제를 통한 제품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그린라운드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수정잉크의 개발을 위한 장기계획과 실행, 인쇄관련 기계, 필름, 잉크 및 부자재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미래를 겨냥한 신제품 개발

현재 일본 등 외국에서는 잉크의 무공해화에 상당한 수준의 기술축적

(그림1) 그라비아 잉크 생산 공정도



을 이룩하고 있는 상황이나 국내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이 분야는 많은 투자금액이 소요되는 만큼 환경보호 차원에서 정부에서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명성은 잉크, 접착제, 코팅제, 기타 부자재 등의 Set화를 통한 공급으로 문제발생시 정확한 원인규명과 대책, 상호 기술교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잉크업계의 제품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을 갖기 위한 교류에 힘쓰고 있다.

명성이 이같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연포장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규명하기 어려워 협력업체간에 분쟁의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문제와 함께 작업장의 쾌적한 분위기의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저취잉크를 개발, 보급하는데 주력하여 상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회사는 종업원 전체의 것이다'라는 신념으로 직원가족이 단합하고 보람있는 직장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야유회나 체육대회 등 전가족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고 복리후생 혜택을 더 많이 주려는 경영진과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종업원들이 뭉쳐진 명성은 올해가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 확실하다.

지난달 전직원이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연수를 갖는 등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명성산업의 미래는 약진을 통한 대도약이 있을 것이다.

오선진 기자

명성은 잉크, 접착제, 코팅제, 기타 부자재 등의 Set화를 통한 공급으로 문제발생시 정확한 원인규명과 대책, 상호 기술교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잉크업계의 제품에 대한 무한 책임의식을 갖기 위한 교류에 힘쓰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규명하기 어려워 협력업체간에 분쟁의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문제와 함께 작업장의 쾌적한 분위기의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저취잉크를 개발, 상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 명성이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각종 잉크제품